

(B)**국어**

(1번~20번)

(9급)

1.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둘째이다.
 - ② 요즘 재산을 떨어먹는 사람이 많다.
 - ③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 ④ 숯병아리가 내게로 다가왔다.

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언가를 상실해버린 느낌을 지니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을 때가 종종 있지요. 게다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눈엔 참 이상했어요. 마당에다 애써서 기른 집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도 이상했고, 겨울을 잘 넘기고 해동이 될 때면 마을에 상여가 나가는 일이 많은 것도 이상해서 계속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 | | |
|-----------|-----------|
| ① 상실 : 衰失 | ② 성장 : 盛裝 |
| ③ 이상 : 異狀 | ④ 해동 : 解冬 |

3.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보기>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길 양쪽에 다 쓰러져가는 집들, 날품팔이 일꾼들이 찾아가는 장국밥집, 녹슨 함석지붕이 찌그러져 있었고, 흙먼지가 쌓인 책방, 조선기와를 올린 비틀어진 이층집, 복덕방 포장이 껣 기어 너풀거린다.

- ① 탈피 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먹이를 먹고 자리를 떠났다.
- ② 잎은 어긋나게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 윗줄기를 감싼다.
- ③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잘 짓는 것과 같다.
- ④ 성장이 둔화되어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다음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 ㄱ.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ㄴ.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 ㄷ.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ㄹ.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 ㅁ.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 | |
|---------------------|---------------------|
| ① ㄱ - ㄷ - ㅁ - ㄹ - ㄴ | ② ㄴ - ㄹ - ㅁ - ㄱ - ㄷ |
| ③ ㄴ - ㅁ - ㄱ - ㄷ - ㄹ | ④ ㅁ - ㄹ - ㄱ - ㄷ - ㄴ |

5. 다음 중 표준어로만 짹지어진 것은?
- ① 덩쿨 - 눈두덩이 - 놀이감
 - ② 웃어른 - 호루라기 - 땀지
 - ③ 계면쩍다 - 지리하다 - 빼지다
 - ④ 주책 - 두루뭉술하다 - 허드레

6.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보기>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 | |
|-------|-------|
| ① 보기 | ② 낮설 |
| ③ 낮추다 | ④ 꽂답다 |

7.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고르면?

- | |
|------------------|
| ㉠ XAY → XBY(대치) |
| ㉡ XAY → XØY(탈락) |
| ㉢ XØY → XAY(첨가) |
| ㉣ XABY → XCY(축약) |

<보기>
술+하고 → [손하고] → [소타고]
(가) (나)

- | | |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8.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차라리 얼어서 죽을망정 결불은 아니 죄겠다.
- ② 마음에 걱정이 있을 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 ③ 그녀는 얼굴이 예쁜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
- ④ 그 사람이 친구들 말을 들을 지 모르겠다.

9.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징은?

- ①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 ②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 ③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④ 언어 유형 중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형 언어이다.

10.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만 끊인 것은?

- ① 서비스 - 소시지 - 소파 - 싱크대 - 팜플렛
- ② 리더쉽 - 소세지 - 싱크대 - 서비스 - 스카우트
- ③ 쇼파 - 쟁크대 - 바디로션 - 수퍼마켓 - 스카웃
- ④ 소파 - 소시지 - 슈퍼마켓 - 보디로션 - 팜플렛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ㅂ, ㅅ, ㅈ, ㅎ’ 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ㅋ, ㅌ, ㅍ, ㅊ, ㅆ, ㅎ’을 만드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ㅅ, ㅈ, ㅊ, ㅍ, ㅌ, ㅎ’ 등도 만들어 썼다.

- | | |
|------|------|
| ① 象形 | ② 加畫 |
| ③ 翹書 | ④ 連書 |

12.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⑦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보기>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⑦타지 않고 걸어서 간다.

- ① 그는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 ②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탈 줄 아는 재주가 있다.
- ③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럼을 잘 탔다.
- ④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타서 먼 곳으로 갔다.

13. <보기>의 홍길동 씨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한자 성어는?

<보기>
홍길동 씨는 내일 열릴 동창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나서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동창회 총무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동창회에 나오기 싫은 평계라고 생각했다.

- | | |
|--------|--------|
| ① 錦上添花 | ② 烏飛梨落 |
| ③ 苦盡甘來 | ④ 一舉兩得 |

14. 다음 한자 성어 중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 | |
|--------|--------|
| ① 道聽塗說 | ② 心心相印 |
| ③ 拈華微笑 | ④ 以心傳心 |

15. 다음 중 <보기>의 뜻으로 옳은 것은?

<보기>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 ① 힘든 일을 억지로 함
- ②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음
- ③ 모든 물건은 순리대로 가꾸고 다루어야 함
- ④ 사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통으로 먹으려 함

16. 다음 제시된 단어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봐란듯이 :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② 가뭇없이 :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 ③ 오롯이 :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 ④ 대수로이 :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

17.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은?

자유란 인간의 특성 중의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새롭게 나타난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파’를 감행하게 된다.

- | | |
|-----------|-----------|
| ① 원인 – 결과 | ② 보편 – 특수 |
| ③ 일반 – 사례 | ④ 주장 – 근거 |

18. 다음 중 서울을 주요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 것은?

- ① 박태원의 『천변 풍경』
- ② 염상섭의 『두 파산』
- ③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 ④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19. 다음 밑줄 친 ⑦~⑩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뭐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⑦ 니 뭐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믄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⑧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뭐락카노 뭐락카노
⑨ 썩어서 동아밧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⑩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 박목월, ‘이별가’ –

- | | | | |
|-----|-----|-----|-----|
| ① ⑦ | ② ⑧ | ③ ⑨ | ④ ⑩ |
|-----|-----|-----|-----|

20.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 것은?

방안에 혓는 촛불 놀과 이별 흐엇판디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더 촛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르도다

- ① 이화에 월백흐고 은한이 삼경인 제 /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랴마는 / 다정도 병인냥흐여 줌 못 드려 흐노라
- ② 흔 손에 막딕 잡고 쪼 흔 손에 가식 쥐고 / 늙는 길은 가식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딕로 칠엿튼이 / 백발이 제 몯져 알고 지름길로 오건야
- ③ 이화우 흇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흔 님 / 추풍낙엽에 저도 날 싱각눈가 / 천리에 외로운 숨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④ 므을 사름들아 올흔 일 흐쟈스라 / 사름이 되어 나셔 올티웃 못흐면 / 므쇼를 갓 곳갈 쇠워 밥머기나 다르랴